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1월 6일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협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 현안 논의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1월 6일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설립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을 비롯해 플랜트 현장 외국인력 고용허용 제도개선 및 청년해외취업지원사업(K-MOVE)과 GAS 재난·재해예방 복구반 편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의 연구위원 및 행정직원 채용현황을 비롯해 오는 3월 17일 정식 개원에 앞서 최종사항을 점검했다.

한편 플랜트 현장에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기계설비공사업체의 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협회에서 추진 중인 외국

인력 고용 제도개선 추진 경과보고 및 외국인력 고용 제도개선 TF팀에서 논의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함께 회원사의 해외건설 인력자원 확보를 위해 두원공과대학과 연계하여 추진중인 청년해외취업지원사업(K-MOVE)에 대한 회원사 수요조사 결과 및 향후 연수 개시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스설비공사협회에 '가스분야 재난·재해예방 복구반' 운영을 요청함에 따라 협의회가 본회에 건의한 복구반 편성안을 심도있게 검토했다. 



해외기계설비건설발전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업무보고 및 김영중 교수 초청 K-move 사업 현황보고

대한설비건설협회 해외기계설비건설발전위원회(위원장 고태식)는 지난 1월 26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2부로 나누어, 1부는 업무보고를 2부는 두원공과대학교 김영중 교수의 K-Move 사업보고가 진행됐다.

고태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의는 현재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K-Move 사업과 해



두원공과대학교 김영중 교수

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정착을 위한 활동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특히 K-Move 사업에 대해 두원공과대학교 김영중 교수님을 초청해 자세한 현황을 들어보는 자

리를 마련했으니 다양한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해외취업 지원사업(K-Move)의 경과보고와 해외설비건설현장 근무직원 수요조사 등 2015년 추진계획과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사항을 비롯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상 업종에 기계설비공사업 포함된 내용 등이 논의됐다.

한편 두원공과대학교 김영중 교수는 K-move 사업의 수요조사, 실무위원회 구성, 교육과정을 비롯한 연수 및 현장실습 등 진행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고, 참여기업 현황을 비롯한 사후관리 등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우수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분리발주·주계약자 TF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제23차 회의를 개최했다

분리발주·주계약자 업무추진 계획 및 회원사 지원방안 논의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1월 21일 서울시회 회장실에서 제23차 설비건설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TF 위원회(위원장 백종윤)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TF위원회는 지난 2014년도 기계설비공사·가스공사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발주 현황을 비롯해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LH공사 등의 분리발주·주계약자 낙찰자 선정 관련 업무추진 사항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개정 사항 등을 보고했다. 또한 국방부, 법무

부 등 주요 발주기관 방문업무를 비롯해 분리발주·주계약자 안내자료 및 2015년 상반기 현장 방문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백종윤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넓은 활동과 지원으로 회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자”면서 “특히 발주기관 등에 배포할 분리발주·주계약자 안내자료 등 홍보를 강화하여 각종 제도 개정 사항이 실제 공사 발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회 시공품질점검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이에씨엔에스(주)의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현장 시공품질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마포구민체육센터 시공품질 현장점검

서울특별시회 시공품질점검위원회(위원장 이용섭)는 지난 1월 20일 이레씨엔에스(주)[대표 김익규]가 마포구청으로부터 수주하여 시공 중인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품질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현장은 이레씨엔에스(주)가 공동도급사인 (주)엠케이지[대표 이건영]와 기계설비공사 부문을 맡아 지난 2014년 5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으며, 총 공사금액은 약 20억으로 현재까지 20% 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날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현장의 점검위원으로 참여한 전인성[화남이앤씨(주) 대표] 위원, 박승우[(주)아시아에너지 대표] 위원은 이레씨엔에스(주) 최사진 현장소장에게 "설비건설업 분리발주가 정착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한 현장관리와 정밀시공으로 품질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시공품질 점검위원들은 점검 결과, 공사감독관 및 감리단과도 업무협의를 등 관계가 원활하고 공정 및 품질,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공사관리와 타 공종 업체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업무협조가 충실한 현장이며, 분리발주 공사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현장으로 평가했다. 




부산권 설비 4개단체는 지난 1월 5일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부산권 설비 4개단체 상호협력 다짐

부산광역시회(회장 김재업)를 비롯한 대한설비공학회 부·울·경지회(회장 윤정인), 한국건축환경설비 영남학회(회장 황정하), 한국설비기술협회 부·울·경지회(회장 정연태) 등 부산권 설비 4개단체는 지난 1월 5일 국민연금 부산회관에서 2015년 신년 교례회를 개최하고 올 미년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연합회 김재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연합회는 미래세대가 기업하기 좋은 건설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특히 거래의 불합리,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 등 건설경제의 3불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건설경제의 민주화를 앞당기고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특히 기계설비건설업체가 중심축이 되어 일자리 창출과 시공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겠으며, 각 단체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년교례회에서 부산광역시회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공헌한 부산테크(주) 문진국 대표, (주)홍영건설 김희주 대표 및 남경설비(주) 이남득 전무이사과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이경희 교수 등 20명에게 ‘부산광역시 자랑스러운 건설인 상’을 시상했다. 



자랑스러운 건설인 상 수상자



인천광역시회는 지난 1월 13일 강화도 마니산에서 '수주기원 및 견실시공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마니산 참성단에서 수주기원 및 견실시공 다짐

인천시회(회장 최호선)는 지난 1월 13일 회원사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도 마니산에서 회원사의 수주기원과 견실시공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수주기원 및 견실시공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 코스(7km)를 걸으며 시회운영과 업계발전 방향에 대한 담소를 나누고 회원사의 화합과 친

목을 다졌다.

최호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산행에 참여해 주신 회원사께 감사하다"며 "끝을 알 수 없는 경기불황에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말고 슬기롭게 이 고난을 헤쳐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이호석 부회장은 "비록 건설경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행사를 통해 희망을 갖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도회는 지난 1월 14일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와 분리발주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및 유기적 협조관계 모색

대한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이연풍)는 지난 1월 14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 소속 직원들과 분리발주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분리발주 공사의 범위 명확화 및 활성화'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가 명시되고 발주기관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의 사업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광주광역시 기

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되고,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와 대한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가 더욱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전남도회는 그동안 설비업계 광주광역시에 재직하는 동안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하다 정년퇴임하는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박승태 설비2과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